

재미한인가족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양상과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은정*

초 록

본 연구는 재미한인부모들의 학습관여행동의 다양한 양상(부모기대,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부모의 훈육방법, 부모의 학교접촉)을 고찰하고,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그 근교에 거주하는 재미한인 가정 중 8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8학년에 재학 중인 12~13세 재미한인 학생 312명과 그들의 부모들이다. 연구도구는 Keith 등(Keith et al., 1993)의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미한인가정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각 변수들은 가정환경 변수 중 영어구사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이민 일세 부모들의 영어구사수준이 높을 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과 관계형성이 보다 용이하고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기대, 의사소통, 훈육방법 등 가정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정 밖의 학습관여 행동, 즉 부모의 학교접촉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다양한 하위변수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모의 학습관여행동(parental involvement), 재미한인가정, 자녀의 학업성취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I. 서 론

부모의 학습관여행동(parental involvement)이 자녀의 학업 성공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 왔다(Coleman & Schneider, 1995).

‘학습관여행동’은 부모가 가정 및 학교에서 자녀의 학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지원행동으로서,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및 숙제 등의 학습활동 도와 주기, 또는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원 등을 포함한다(문은식·김충희, 2003). 교육 사회학자들은 이전까지 자녀의 학습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져왔던 가정의 수입 또는 부모의 교육수준만으로는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Coleman, 1988). 최근 구미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 또는 심지어는 매스컴에서까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Bickely, Trivette, Keith, and Anderson, 1995).

이러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가정의 경우 동아시아의 부모들과는 달리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무심한 경향이 있고, 또 별다른 지원 활동을 하지 않는 바 교육 정책적으로 부모들의 학습지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부모들의 학습 관여행동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 또는 백인 노동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논의된 것이 없는데(Kim, 2001) 그 이유는, 아시아계 학생의 경우 학업 성공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고, 또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이 이미 지대하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이다(Chao, 1994). 고정관념이 만들어져온 기제를 살펴보면, 실제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에 기반 한 것이 아닌,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배포된 ‘아시아 이민 가정 부모들의 엄청난 교육열과 그 자녀들의 놀랄만한 학업 성취’라는 언설을 통해 야기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수치상의 통계를 볼 때 아시아로부터 이민 온 청소년들 중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소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 소수집단

이 전체 아시아 이민 청소년 집단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KYCC Annual Report, 2004). 따라서 아시아 이민자 가정의 부모학습관여 행동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연구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아시아 이민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언급되는 ‘아시아’ 이민가정이라는 개념상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계 민족(ethnicity)은 모두 50개가 넘으며, 각 민족마다 서로 다른 이민배경과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치부하여 아시아 가족, 또는 아시아계 학생의 발달을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류지영, 2005).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 집단을 선정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재미 아시아인이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보다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 내 한인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학습관련 행동 관련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한인청소년들의 학습환경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재미한인 가족 내에서 과연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영향력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자녀의 학업성공 사이의 관계를 밝힐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차원적 개념으로서의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대하여 학계 안팎으로 관심이 대단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한 반면, 지금까지 학계의 동향을 보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과연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합의가 학자들 사이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Keith & Benson, 1992). 엽스타인(Epstein, 1999), 브래들리와 라이안

(Bradley & Ryan, 1984)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성취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 반면, 에클리스와 미드리(Eccles & Midgley, 1989)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들 사이의 엇갈리는 결과를 볼 때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 가지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키스와 벤슨(Keith & Benson, 1992)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키스와 벤슨은 ‘학습관여행동’이 상당히 모호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어서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발달에 대한 상관성을 보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영향력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기 어렵다고 논의하였다.

2.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의 측정변수: 부모의 기대,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훈육방법, 부모의 학교접촉

키스, 키스, 트라우트만, 비클리, 트리벳, 싱(Keith, Keith, Troutman, Bickely, Trivette & Singh, 1993)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데에 동의하면서, 그 다면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영역별로 구성된 복합적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네 가지 영역, 즉, ‘부모의 기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훈육방법’, 그리고 ‘부모의 학교접촉’을 통해 측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부모의 기대’란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학업 성공에 대한 기대인데 이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얼마큼 잘 해나가기를 원하는가 또는 앞으로 진로선택 할 때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을 성취해나가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척도이다(Epstein, 1999). ‘부모의 기대’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자녀가 교육받기를 원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게 함으로써 측정되어왔다(Bickley, Keith, Trivette, & Anderson, 1995). 둘째,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의사소통’이란 일반적으로 부모가 보여주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자녀사이의 대화 등의 수준·빈도를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빈번한 의사소통/대화는 자녀

들의 학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해왔다. 셋째, ‘부모의 훈육방법’이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위라든가 통제, 처벌의 기준, 집에서 정한 규칙 등을 가리킨다(Keith, Keith, Troutman, Bickely, Trivette & Singh, 1993). 부모의 훈육방법과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브래들리와 라이언(Bradley & Ryan, 1984)이 자녀들의 외출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자녀들의 학습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반면, 코스트너(Kostner, 1984)는 부모의 통제나 권위의 사용은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넷째, ‘부모의 (자녀의) 학교접촉’은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성을 통한 부모자녀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학교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중재자/조력자로서 개입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개념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관여 행동이었던 반면 부모의 학교접촉은 가정 밖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관여행동으로서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핀과 알렉산더(Griffin & Alexander, 1978)는 부모와 학교(교사)사이의 대화와 의사교환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능력을 신장시킨다고 밝혔다.

키스 등(1993)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위의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개념이며 각 차원의 학습관여행동이 가정의 물질적·인적 자원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습관여행동의 한 면만을 볼 경우 전체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과 학업발달에 대한 효과를 놓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논의에 동의하여 학습관여행동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문제

재미한인가족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재미한인가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부모의 기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부모의 훈육방법’, 그리고 ‘부모의 학교접촉’의 네 가지 영역에서 분석하였다.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부족한 점은 가정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시도한 것인데(Keith, Keith, Troutman, Bickely,

Trivette & Singh, 1993),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수입, 부모의 교육수준·부모의 영어구사능력 등 제반적 요소들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모 학습관여행동의 각 영역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이루는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단일개념 변수가 아닌 다차원 개념 변수로 측정 연구되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미한인가정에서 가정환경변수(부모의 수입/교육수준/이민자 가정의 특성(이민자 부모의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동화 정도, 예를 들면 영어/이민국가의 언어/문화숙련도 등)과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각 영역(‘부모의 기대’,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훈육방법’ ‘부모의 학교와의 접촉’)등은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재미한인가정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의 각 영역들은 중학생(미국 학제 내 8학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하여 세워진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

가설 2-2: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

가설 2-3: ‘부모의 훈육방법’이 엄격할수록(즉 부모의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

가설 2-4: ‘부모의 학교접촉’ 빈도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

IV.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그 근교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가정 중에서 8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8학년에

재학 중인 12-13세 연령의 재미한인 학생 312명과 그들의 부모들이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종교단체와 한국어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2005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480개의 설문지 중 부모와 자녀 모두 응답한 312개의 설문지만이 최종분석 되었다. 자녀 응답자들은 ‘자녀설문지’에 답변했는데, 이 설문지는 부모의 교육수준, 수입,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그리고 자신들의 학업성적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부모들은 가족구조, 수입, 교육수준, 미국사회에의 적응도에 대한 설문을 담은 ‘부모설문지’에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대’, ‘학업에 대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훈육방법’, 그리고 ‘부모의 자녀의 학교접촉’이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에 속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기대’ 영역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1 = 초졸, 2 = 중졸, 3 = 고졸, 4 = 대졸, 5 = 대학원졸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학업에 대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영역은 두 개의 변수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학교대화’와 ‘진로대화’이다. ‘훈육방법’ 영역은 ‘숙제감독’, ‘TV 규제’, 그리고 ‘외출규제’ 등의 세 변수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 학교 접촉’ 영역은 ‘부모-교사 대화’, 그리고 ‘학교행사참여’ 등으로 측정되었다. 학교대화, 진로대화, 숙제감독, TV 규제, 외출규제, 부모-교사 대화, 학교행사참여는 모두 1 = 전혀 하지 않는다, 2 = 가끔 한다, 3 = 보통, 4 = 자주 한다, 5 = 매우 자주 한다 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2) 가정환경변수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여타 다른 가정환경의 변수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영향을 끼친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하는 문제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각 차원의 특성과 효과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Keith, Keith, Troutman, Bickely, Trivette

& Singh, 1993).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 수입을 중요 가정환경 변수로 포함하였고, 이외에 재미 한인가족의 학습관여행동 연구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부모의 영어구사능력'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의 영어구사능력은 '1 = 거의 못한다, 2 = 조금 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 = 보통, 4 = 비교적 잘 한다, 5 = 유창하다'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1> 중요 가정환경,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자녀의 학업성취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표본수 = 312)

변수 ¹⁾		변수의 정의	평균	표준편차
부모기대	부모의 기대	부모의 자녀의 학습에 대한 기대/열망 (최소값 = 1(중졸), 최대값 = 5 (대학원 졸 이상))	4.31	.81
학교대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학업에 대한 부모-자녀대화 (최소값 = 1, 최대값 = 5)	3.39	1.08
진로대화		진로/진학에 대한 부모-자녀 대화 (최소값 = 1, 최대값 = 5)	3.79	1.21
숙제감독	훈육방법	자녀의 숙제/학업등에 간여하고 통제하는 정도 (최소값 = 1, 최대값 = 5)	3.81	1.34
TV 규제		TV에 대한 통제/규칙 (최소값 = 1, 최대값 = 5)	3.79	1.10
외출규제		자녀의 외출에 대한 통제/규칙 (최소값 = 1, 최대값 = 5)	3.24	1.89
부모-교사대화	부모의 학교접촉	부모/교사 사이의 자녀의 학업/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최소값 = 1, 최대값 = 5)	1.93	1.24
학교행사참여		학교행사/학부모 회의 참여도 (최소값 = 1, 최대값 = 5)	1.68	1.04
수입		가정의 수입 (최소값 = 연봉 2만불 이하, 최대값 = 20만불 이상)	58000불	10900불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최소값 = 1, 최대값 = 5)	3.99	1.08
영어구사능력		부모의 영어구사능력 (최소값 = 1, 최대값 = 5)	2.41	1.91
학업성취도		자녀의 학업성취도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성적의 평균값) (최소값 = 1, 최대값 = 5)	3.46	1.21

1)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변수의 경우는 변수와 그 변수가 속하는 영역을 제시하였음.

3)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A, A-, B+, B, B-, C+, C, C-, D+, D, F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보고한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의 성적을 산술평균 한 값을 말한다. 학생들의 보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의 보고와 실제성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성적표를 토대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데 대해서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많은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척도라고 인정되고 있으며, 아직 이를 대체할 만한 척도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Keith & Benson, 1992).

V. 연구결과

1. 재미한인가족의 가정환경과 부모학습관여 행동

312명의 학생응답자들 중 168명 (53.8%)은 남자, 그리고 144명 (46.2 %)은 여자 응답자였다. 이들의 나이는 11-14세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12세 (148명), 13세 (151명)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95.8 %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그룹의 평균 나이는 13.1세였다. 부모응답자들을 보면 187명이 어머니, 89명이 아버지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36명이 친척 또는 그 외의 보호자들이었다. 부모·보호자들의 나이는 34세로부터 64세에 걸쳐 있었는데, 아버지(남자 보호자)의 경우 37-49세, 그리고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경우 34세-64세였다. 부모응답자들의 교육수준(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71 %인 221명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재미한인부모들이 고등교육 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수입은 21.5 % (67명)이 40,000불 이하였으며, 32.5 % (100명)이 40,000 - 60,000불 사이, 15.8 % (49명)이 60,000-80,000 불 사이, 12.9 % (40명)이 80,000 - 100,000불 그리고, 나머지 17.3 % (56명)이 100,000불 이상이었다.

응답자의 미국문화 적응도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들은, ‘응답자의 출생지’, ‘미국거주

기간', '영어구사능력'인데 출생지에 관해서는 자녀 응답자의 94 % 인 293명이 미국에서 출생했고, 5 %인 15명이 한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4명이 필리핀, 일본,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출생했다.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응답자들도 7세 미만에 미국이나 그 외 영어권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부분의 학생 응답자들이 미국 (또는 서구권 문화)내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응답자들의 경우는 312명 중 287명 (91.9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균나이 28.9세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대부분의 부모 응답자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응답자들의 언어선호도를 보면 89 % (277명)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는 반면, 92 % (287명)의 학생응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는 영어라고 대답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재미한인 가족은 부모세대가 대부분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인 반면, 자녀세대는 미국문화 하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적/문화적 선호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재미한인 가족의 가정환경변수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재미한인가정에서 가정환경과 학습관여행동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표 2>는 이에 대한 요약이다. 교육수준과 영어구사력 사이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창한 영어구사력은 미국사회에 그만큼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의 경우 미국사회에의 적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관여 행동에 대한 변수 중 '부모의 기대'는 가정의 수입과 그리 크지는 않지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5$). 낮은 수준의 수입을 갖고 있는 가족 내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미한인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경제능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재미한인가정에서 가정환경, 학습관여행동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1 ²⁾	2	3	4	5	6	7	8	9	10	11
1	1.000	.008	.299*	.009	.251*	.256*	.210*	.125*	.009	.210*	.202*
2		1.000	.001	-.175*	.025	.012	.009	.021	.010	.009	.005
3			1.000	.007	.292*	.263*	.276*	.263*	.011	.289*	.231*
4				1.000	.059	.080	.043	.092	.019	.013	.012
5					1.000	.584*	.268*	.226*	.198*	.003	.016
6						1.000	.170*	.009	.220*	.212*	.028
7							1.000	.007	.006	.144*	.030
8								1.000	.371*	.080	.016
9									1.000	.010	.011
10										1.000	.210*
11											1.000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두 번째 ‘자녀와 부모사이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학교 대화’와 ‘진로 대화’, 두 변수가 사용되었는데, 두 변수 모두 ‘부모의 교육수준’, ‘영어구사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과 영어구사능력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횟수가 보다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영어구사능력이 높은 부모들의 경우 미국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은 그들의 자녀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세 번째 영역은 ‘훈육방법’이다. 이 개념은 세 가지 변수 ‘숙제감독’, ‘TV규제’ ‘외출규제’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숙제감독’과 ‘TV 규제’가 영어구사능력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출에 대한 규제’의 경우 부모의 영어구사능력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자녀)학교 접촉’영역은 지금까지 살펴본 가정 중심의 학습관여행동과는 달

- 2) 가정환경 변수: 1.부모의 교육수준 2. 가정의 수입 3. 부모의 영어구사능력
 부모의 기대 영역: 4. 부모기대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영역: 5. 학교대화 6. 진로대화
 훈육방법영역: 7. 숙제감독 8. 행사참여규제 9. 외출규제
 부모의 학교접촉 영역: 10. 부모-교사대화 11. 학교 행사참여

리 가정 밖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으로 사용된 변수는 ‘부모-교사 대화’와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이다. 이들 변수 모두 부모의 영어구사능력과 깊은 상관성을 보였으므로 부모의 영어구사능력이 가정 내 학습관여 행동 뿐 아니라 가정 밖의 부모 학습관여행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볼 때 가정환경 변수 중에서 부모들의 교육수준과 영어구사능력이 한인 부모들의 학습관여행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어 온 반면, 이민자 가정에서 부모들의 영어구사능력과 학습관여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진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구사능력에 따른 학습관여행동의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민자들의 영어구사능력이 그들의 새 문화에 대한 적응도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Kim, 2001; Greenfield & Cocking, 1994)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인부모들의 영어구사력 수준에 따른 학습관여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부모들의 미국생활/문화에의 적응도가 과연 그들의 학습관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것이다. 설문지에서 다섯 단계로 구분된 부모의 영어구사능력을 설문결과를 토대로 하여 세 수준으로 재분류(‘낮은 수준’, ‘보통 수준’, ‘높은 수준’)하였다. 세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ANOVA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부모의 기대수준은 영어구사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³⁾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인부모들이 자신들의 영어구사 능력에 상관없이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은 부모의 기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부모의 영어구사능력 수준 차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ANOVA 사후분석(다중비교분석)을 한 결과이다.

3) 부모의 기대: 낮은 수준 (평균: 4.324 표준편차: .503),
보통 수준 (평균: 4.245 표준편차: .552),
높은 수준 (평균: 4.365 표준편차: .408)

<표 3> 부모의 영어구사능력 차이에 따른 학습관여행동 수준 ANOVA:
사후분석-다중비교 (Scheffe) 결과

	낮은 수준		보통 수준		높은 수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대화abc	2.500	.831	2.998	.452	3.341	.521
진로대화abc	2.715	.245	3.093	.879	3.378	.756
숙제감독abc	2.984	.879	3.112	.763	3.513	.623
TV규제abc	2.711	.206	3.035	.130	3.362	.819
외출규제abc	2.308	.983	2.891	.790	3.893	.915
부모교사대화bc	1.006	.909	1.021	.546	3.090	.719
학교행사참여bc	1.021	.872	1.141	.425	3.001	.671

a: $p < .05$ 수준에서 낮은수준과 보통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b: $p < .05$ 수준에서 보통수준과 높은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c: $p < .05$ 수준에서 낮은수준과 높은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학교대화’와 ‘진로대화’의 정도는 부모의 영어구사능력 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재미한인가족에서 부모의 자녀 사이의 언어선호도 또는 모국어가 다를 때,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은 부모가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훈육방법’의 변수인 ‘TV 규제’, ‘숙제감독’과 ‘외출규제’도 부모들의 영어구사능력에 따른 각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영어에 능숙한 부모들일 수록 자녀들의 생활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의 학교와의 접촉’ 영역을 보면, 영어구사능력이 높은 부모와 보통/낮은 부모들 사이에 차이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교사 대화’와 ‘학교행사 참여’에서 영어구사능력이 낮은 부모와 보통 수준의 부모 사이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보통수준의 부모와 높은 부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Scheffe 검정 결과 밝혀졌다. 또한 영어구사능력이 ‘낮은 수준’과 ‘보통 수준’의 부모들이 보여주는 가정 밖의 학습관여행동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학습관여행동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영역별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학습관여행동의 각 변수와 학습 성취도 사이의 관계

재미한인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각 변수들의 효과와 영향을 살피고, 가설 2-1, 2-2, 2-3, 2-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는데, 가정환경 변수만을 포함하고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학습관여행동의 각 변수를 포함한 모형들을 비교하여 학습관여행동의 각 차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각 모형과 표준화 회귀계수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표 4>의 ‘기본모형’이란 가정환경 변수만을 포함하고 학습관여행동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영어구사능력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과 영어구사능력은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2-1: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아진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A를 보면, 자녀의 학업(적성공)에 대해 높은 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설 2-1을 받아들인다. 모형 A를 보면 기본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교육수준의 효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기대’가 부모의 교육수준과 영어구사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높은 기대는 부족한 교육수준이나 영어구사능력을 보충하여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가설 2-2: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아진다’를 분석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영역의 변수 ‘학교대화(모형 B)’의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의 빈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⁴⁾ ‘진로대화’도 역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설 2-2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학습관여행동의 세 번째 영역인 ‘훈육방법’의 효과를

4) <표 4>에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학교대화’, 부모의 훈육방법 영역에서 ‘숙제감독’, 부모의 학교접촉 영역에서 ‘부모교사대화’를 사용한 모형만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진로대화’는 ‘학교대화’와, 훈육방법 영역에서 ‘TV 규제’와 ‘외출규제’는 ‘숙제감독’과, 학교접촉 영역에서 ‘학교행사참여’는 ‘부모-교사대화’와 회귀계수만 다를 뿐 그 효과가 같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4>에서 제시하지 않은 모형은 <부록>에 나타나있다.

검증하기 위해 세워진 가설 2-3을 검증하기 위하여 숙제감독(모형 C)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역시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TV 규제’와 ‘외출규제’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가설 2-3을 받아들인다.

부모의 가정 밖의 학습관여행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워진 ‘가설 2-4: 부모의 학교접촉 빈도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영역의 변수 ‘부모와 교사 사이의 대화(모형 D)’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와 교사사이의 대화에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모의 영어구사능력을 제외하고 구성한 모형 E에서도 부모-교사대화는 여전히 자녀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가설 2-4를 기각하였다. 부모의 학교접촉은 부모의 영어구사능력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표 3 참조), 자녀의 학업성취를 진작시키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는 못했으므로, 재미한인가족에서 가정 밖의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가정 내 부모 학습관여행동과는 달리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4> 가정환경, 학습관여행동, 자녀의 학업 성취 간의 다중회귀분석 모형과 표준화 회귀계수 (표본 수 = 312)

	기본모형	A	B	C	D	E
성별	-.019	-.013	-.019	-.017	-.018	-.019
부모나이	-.005	-.003	-.005	-.004	-.002	-.008
편부모	.010	.020	.011	.013	.023	.030
재혼가정	-.020	-.016	-.004	-.017	-.003	-.009
교육수준	.231*	.010	.125*	.111*	.121*	.250*
가정수입	.011	.012	.010	.011	.017	.021
영어능력	.241*	.151*	.134*	.149*	.282*	
부모기대		.205**				
학교대화			.123*			
숙제감독				.114*		
부모-교사대화					.010	.019
유의확률	.000	.000	.001	.000	.001	.001
R제곱	.199	.200	.201	.208	.173	.112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V. 토 론

본 연구는 재미 한인 부모들의 학습관여행동의 다양한 양상과 그에 대한 가정환경의 영향을 고찰하고, 나아가서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첫째, 가정환경과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부모의 영어구사 능력이 ‘부모의 기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변수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의 영어구사능력은 그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큼 잘 적응/동화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때, 영어구사능력이 높은 부모들은, 미국사회에서 나고 자라며 교육받고 있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을 것이며,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개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미한인 부모들은 그들의 영어 구사능력이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교육적 성공’이란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고, 한국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교육에 대한 기대는 비할 나위 없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Sorenson, 1994), 이 같은 교육적 성공에 대한 열망,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한국 뿐 아니라 재미한인 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부모들이 갖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도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기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여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는 가정 내 의사소통이 자녀의 심리·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다.

넷째, 재미가정 내에서 부모의 ‘훈육방법’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범윈드(Baumrind, 199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범윈드(Baumrind, 1991)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엄격하게 훈육시킬

경우 자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여 학업성취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는데, 한인가족 내에서는 이와는 달리 엄격한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권위적인 부모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재미 아시아 이민 가정을 분석한 차오(Chao, 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차오(Chao, 1994)는 아시아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권위적이고 엄격한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가정문화 하에서 자라난 아시아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들의 엄격한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신감을 갖고 행동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학업 성취에 모두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아시아의 부모가 행사하는 엄격한 훈육방식은 서구 연구자들이 보는 것처럼 자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직적인 통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각 사회/민족 집단은 자신의 사회 문화적 가치와 생활환경에 따라 나름대로의 사회화 방식을 발달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인 부모가정에서 부모의 엄격한 훈육방법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었다. 백인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범윈드(Baumrind, 1991)의 가설은 백인 이외 타민족 가정/문화에 항상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양육방식과 청소년기 적응과의 관련성은 민족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다섯째,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영역인 ‘부모의 (자녀의) 학교접촉’은 가정 내의 부모 학습관여행동 보다 그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또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변수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 것과는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한계로 인하여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가정 밖에서 제한되자, 한인 부모들 스스로 가정 내에서의 학습관여행동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처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가정 내 학습관여 행동이, 부족한 가정 밖의 학습관여행동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달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인 이민자들은 낯선 이국 땅의 사회·문화·교육시스템에 적응해 나가고자 할 때,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집단과 대면하기 보다는 가정 내 울타리를 공고히 하고, 그 안에서 가족 관계를 강화하여 주변자적 위치에서 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통해 이민사회에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민자 가정 내의 강화된 가족관계는 그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재미한인 가정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가족이 처한 사회, 문화, 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띄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한 가지 변수로 등치하여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지금까지의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 개념을 단순히 하나의 변수로 등치시켜 분석한 것과는 달리, 학습관여행동의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정리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는 본 연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라는 지역을 한정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했으므로 외국에 살고 있는 전체 한인 가정을 연구할 때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더욱 더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부모는 영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가정 밖 학습지원 행동도 가능 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다른 지역 또는 캐나다, 호주 등 한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있는 한인들은 영어구사 능력 개발이 그들의 삶에 필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조건 하에서 영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의 가정 밖 학습지원 행동은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고,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결속력이 강한 한인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사는 한인들은 한국 문화라든지 한인 공동체의 압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공동체로부터의 상대적인 자유는 가정 내에서 그들이 가족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형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이민가족에 대한 연구는 한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한정하지 않고 이민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이 조명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본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것인데, 키스 등(1993)의 다중 분석틀을 사용하여 재미한인가정에서의 학습관여행동을 분석하였으나, 본래 이 틀이 미국 백인 가정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비서구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인가정의 부모-자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앞으로의 재미한인 또는 이민자 가족 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학습관여행동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국가의 가족에 적합한 검사도구로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문은식·김충희, 2003), 한국 부모들의 경우 과외/학원수업 등의 사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는 외국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고 있는 조기 유학생 청소년, 또는 이민 2세를 위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기유학, 또는 한인 1세대들의 자녀들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기 한인들의 숫자가 미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교육개발원, 2005)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부모의 곁을 떠나 외국에 홀로 나가서 학교에 다니는 조기유학자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에게는 부모의 정신적/감정적 지지와 학습관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재외국민(재외한인)에 관한 연구는 성인집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청소년기 또는 아동기 자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오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는 학계에서 소외된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사회에 거주하는 한인학생들의 학업환경과 한인가정 내의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미국 내에 있는 한인 가정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전 지구화된 사회, 이주와 이동이 보다 빈번해진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소통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재미한인 가정을 살펴본 이 연구가 글로벌 시대에 미래의 한국가족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이와 관련된 후속작업이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개발원 교육 인적부(2005). 조기유학생 현황. 서울: 교육개발원.
- 김은정(2005). 부모교육참여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재미 한인 사례 연구. 김영기 편 (2005). 한국사회론. 전북: 전북대출판부.
- 문은식·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 17권 제 2호, pp. 271-288.
- 류지영(2005). 재미한인 영재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감 형성. 청소년학 연구 제 12권 제 1호, pp. 347-369.
- 조혜정(1991).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aumrind, D.(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J. Broos-Gunn (Eds.) (1991).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Y: Garland.
- Bickely, P., Trivette, P., Keith, T., & Anderson, E.(1995). The effects of four componen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student achievement: Structural analysis of NELS-88 data. *School Psychology Review, Vol.24, No.2*, pp. 299-317.
- Bradley, R.H. & Ryan, R.M.(1984). Children: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five years. In A. Goffried. (Eds.). *Home environment* (5-56). FL: Academic Press.
- Chao, R.(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Vol. 65*, pp. 1111-1119.
- Coleman, J.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5-120.
- Coleman, J.S. & Schneider, B.(1995).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Boulder, CO: Westview Press.
- Eccles, J. S., & Midgley, C.(1989). Stage-environment fi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young adolescents. In C.Ames &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3, pp. 139-18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Inc.

- Epstein, J. L.(1999). School and family connection: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integrating sociologies of education and family. *Marriage and Family Review*, Vol. 15, (1-2). pp. 99-126.
- Gladstone, J. & Westhues, A.(1998). Adoption reunions: A new side to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Vol. 44, pp. 177-184.
- Greenfileld, A.E. & Barthurst, K.(1988). Maternal employ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fancy through the school years. In Gottfried, A.E. & Gottfried, A.E. (Eds.) (1988). *Maternal employment, family infancy through the school years*. (pp. 11-58). New York: Plenum Press.
- Griffin, L. & Alexander, K.L.(1978). School and socio-economic attainments: High school and college influenc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4, pp. 319-47.
- Keith, P.B. & Benson, M.J.(1992). Effects of manipulable influences on high school grades across five ethnic group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86, pp. 85-93.
- Keith, T., Keith, P., Troutman, G.C., Bickley, P.G., Trivette, P.S., & Singh, K.(1993). Does parental involvement affect eighth grade student achievement? Structural analysis of national data. *School Psychology Review*, 22, 3, 474-496.
- Keith, T.Z., Reimers, R.M., Fehrmann, P.G., Pottebaum S.M., & Aubey, L.W. (1986). Parental involvement, homework and TV tim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high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8, pp. 373-380.
- Kim, E.(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in the Korean American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 Korean Youth and Community Center.(2004). *KYCC Annual Report*.
- Kostner, R., Ryan, R., Berniery, F., & Holt,K.(1984). Setting limits in children's behavior: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ontrolling versus informational styles of

-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Vol. 52, pp. 233-248.
- Lee, E.(1983). *A social systems approach to assessment and treatment for Chinese educat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Majoribanks, K.(1986).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aspirations as assessed by Seighner's model. *Merrill-Palmer Quarterly*, Vol. 32, pp. 211-230.
- Muller, A.(1995). Maternal employment, parental involvement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7, (1), pp. 85-100.
- Sorenson, C.(1984). Farm labor and farm cycle in traditional Korea and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Vol. 40, pp. 306-323.
- Tseng, V. & Fulgini, A.(2000). Parent-adolescent language use and relationships among immigrant families with East Asian, Filipino, and Latin American backgrou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2(2), pp. 465-475.

<부록> 가정환경, 학습관여행동, 자녀의 학업 성취 간의 다중회귀분석 모형과 표준화 회귀계수 (표본 수 = 312)

	기본모형	A	B	C	D
성별	-.019	-.014	-.017	-.007	-.019
부모나이	-.005	-.004	-.007	-.005	-.005
편부모	.010	.021	.014	.015	.043
재혼가정	-.020	-.014	-.009	-.010	-.008
교육수준	.231*	.040	.123*	.112*	.142*
가정수입	.011	.015	.019	.009	.018
영어능력	.241*	.116*	.128*	.138*	.276*
진로대화		.178*			
TV규제			.187*		
외출규제				.120*	
학교행사 참여					.009
유의확률	.000	.000	.001	.000	.000
R제곱	.199	.201	.200	.204	.142

*,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ABSTRACT

The Effect of the Parental Involvement on the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in the Korean American Family

Kim, Eun-Jung*

As opposed to the unidimensional construct, this study seek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parental involvement with respect to the Korean immigrant family in the US. The four components of parental involvement considered were 'parental academic aspirations on children', 'communication with children', 'home supervision', and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Parental involvement in the Korean American family is characterized by a very high level of 'parental aspiration on children', which indicates Korean American parents still uphold the value of education. It also finds a low level of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Among measures of parental involvement, 'parental aspiration', 'communication with children' and 'home supervision' have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Parents' school contac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so it is not a strong indicator of parental involvement to predict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in the Korean American family. This study explains multiple dimensions of parental involvement in the Korean immigrant family by examining how family background influences parental involvement, assessing the effects of different dimensions of parental involvemen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American children.

Key words : Parental involvement, multi-dimensional construct,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the Korean American family

투고일 : 3월 28일, 심사일 : 6월 1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

*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